

전일동향

수출업체 네고물량에...1,339.50원에 마감

29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,337.70(15:30 기준)에서 4.30원 상승한 1,342.0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서울장에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 압력을 키웠으나 하단에서 매수 물량이 유입돼 반등하며 1,339.50원에 증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.7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48.52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42.00	1342.00	1331.30	1339.50	1335.30
	엔화	850.29	850.56	843.65	848.52	-
	유로화	1496.61	1497.69	1484.02	1495.98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04	-2.46	-6.28	-15.33
	결제환율(수입)	-0.01	-1.37	-4.3	-11.69
	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

금일 전망

美 기술주 약세에...1,33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9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36.80, 15:30 기준) 대비 3.05원 상승한 1,338.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위험회피 분위기 속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. 간밤 미국 대형 기술주 실적 부진에 따른 AI 수익성 의구심으로 뉴욕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했다. 이에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달러 약세로 이어졌으나, 금일 원화는 위험회피 심리로 인해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또 한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며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. 한편, 금일 예정된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직전 단행한 금리 인상의 여파와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동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나, 결과를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다만, 달러 약세와 환율 상단에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30.50 ~ 1343.50 원
체크포인트	<div> <div>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6659.9 억원</div> </div>
	<div> <div>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05원 ↑</div> </div>
	<div> <div>■ 美 다우지수 : 52342.56, -132.54p(-0.25%)</div> </div>
	<div> <div>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5.95 억달러</div> </div>
	<div> <div>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536 억원</div> </div>